



2013년 11월 6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 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The Chart of the week: US Steel

• 채권분석

2014년 채권 전망: 기초적 경상수지 흑자 시대의 금리 및 통화정책

• 크레딧분석

거두절미하고 연중 변동성 진정국면 즐기기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종합 소폭 상승, 홍콩H 약세 전환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종목

• 기업분석

BS금융지주, 현대하이스코, 현대홈쇼핑, GKL, 에스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29(화)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1.76	2,059.58	2,030.09	2,039.42	2,025.17	2,013.93	
	등락폭	3.62	7.82	-29.49	9.33	-14.25	-11.24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13)	452(6)	271(3)	403(3)	307(10)	304(23)
		하락(하한)	415(1)	352(1)	555(7)	396(7)	499(0)	499(1)
	ADR	83.93	87.81	86.98	88.55	89.40	90.45	
	이격도	10 일	100.31	100.57	99.18	99.70	99.14	98.80
		20 일	101.25	101.47	99.94	100.31	99.54	98.94
	투자심리	70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08	263	255	291	235	255	
	거래대금 (십억 원)	3,635	4,220	4,548	3,568	3,529	3,480	
코스닥	코스닥지수	533.91	537.68	532.44	534.74	533.64	528.73	
	등락폭	-1.07	3.77	-5.24	2.30	-1.10	-4.91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5)	452(4)	271(10)	522(6)	307(5)	270(3)
		하락(하한)	415(1)	352(0)	555(2)	402(4)	499(1)	658(1)
	ADR	80.55	84.90	85.88	86.25	88.22	87.62	
	이격도	10 일	100.86	101.35	100.15	100.41	100.13	99.26
		20 일	100.68	101.36	100.35	100.76	100.54	99.61
	투자심리	70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8	348	313	360	311	323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656	1,705	1,726	1,596	1,48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829.4	852.5	784.3	152.0	123.6	215.1	71.6	22.3	199.769	33.8
	매도	1,630.0	901.4	926.1	308.9	120.0	227.0	65.1	26.2	178.9	42.5
	순매수	199.3	-48.9	-141.8	-156.9	3.6	-11.9	6.4	-3.9	20.9	-8.7
	11 월 누계	262.4	-56.7	-184.4	-324.6	40.2	-107.3	37.0	-18.0	188.4	-21.3
	13 년 누계	-4,773.7	5,111.8	1,305.4	725.6	1,239.3	-6,434.6	-415.9	-2,664.7	8,855.8	-1,643.4
코스닥	매수	1,344.5	61.9	78.0	12.2	9.8	23.0	11.9	1.3	19.7	12.9
	매도	1,328.3	77.6	79.3	17.5	7.8	21.3	7.0	2.3	23.3	12.1
	순매수	16.2	-15.7	-1.3	-5.3	2.0	1.7	4.9	-1.0	-3.6	0.8
	11 월 누계	9.7	-75.0	61.1	17.0	7.4	32.5	18.2	0.3	-14.3	4.2
	13 년 누계	-757.9	1,637.7	-39.8	-114.9	-85.3	148.4	-132.6	-83.9	228.5	-839.9

The Chart of the week: US Steel

11월 월간 밴드	1,980-2,10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100pt
12MF PER	9.8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7.4%P

- ▶ 미국 달러 강세 전환: 유로화/국제 상품 급락. 미국 주도의 New normal 관점 유효
- ▶ US steel 주가 강세: 5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 숏커버링이 주가 끌어올려
- ▶ 신재생, 소셜미디어 중심의 유동성 장세(달러 강세). 과도한 우려 반영된 주식의 정상화 유효

■ 달러 강세 전환과 US Steel 주가의 강세

지난주 자료(“뉴노멀과 정상화”)에서 변곡점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중요한 함의 때문인지 지난주 미국 달러의 변동성은 예상보다도 훨씬 컸다. 미국 달러는 급격한 강세로 전환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유로화가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국제상품지수인 CRB가 급락했다. 전반적으로 FX와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다.

우리는 달러 강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주로 주도해온 이른바 ‘New normal’이 유효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봤는데, 이것이 금융시장의 시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와 신재생 관련 주식들의 강세이다. 달러 강세를 수반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관련된 주식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미국의 US Steel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한달간 동 주가는 무려 20% 이상 상승했다. 전형적인 경기민감주인 주식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실적 측면에서 몇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지난 3분기 조정순이익은 비록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다. 또한 영업 이익률은 5.5%로 역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숏커버링이었다. 지난 8월말 기준 US Steel에 대한 숏 물량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결국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아래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상화 트레이딩).

또한 US Steel의 실적 개선이 글로벌 철강 시장 전체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HRC 가격은 6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중국 HRC 가격은 mini-stimulus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3분기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달러 강세를 수반한 유동성 국면에서 큰 줄기는 신재생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New normal 관점의 주식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며 경기민감 cyclical 업종에 대해서는 최악은 지났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반영된 주식의 정상화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

[그림 1] 미국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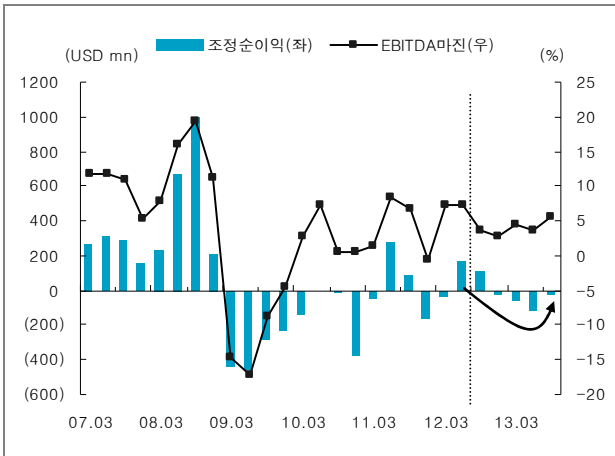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그림 2] CRB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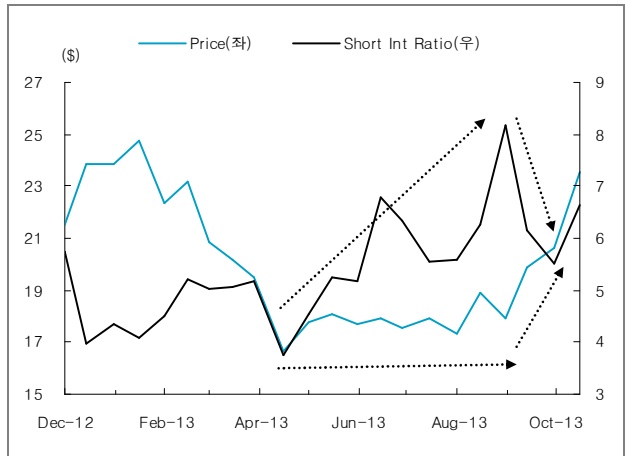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그림 3] US Steel - 순이익과 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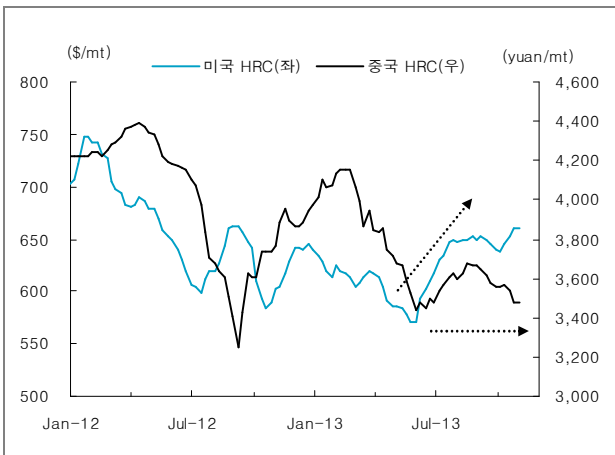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US Steel - 숏커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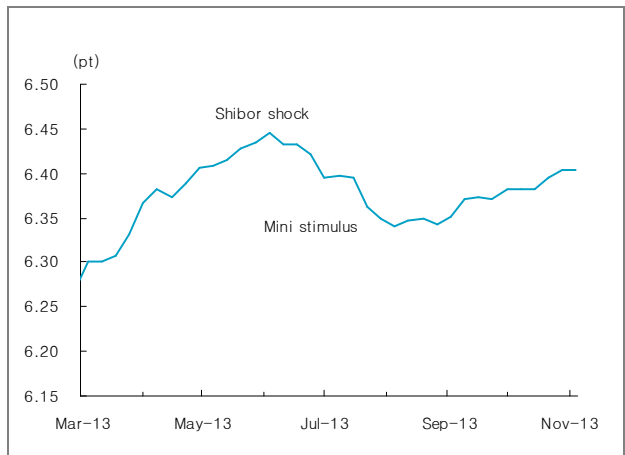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HRC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MSCI China 예상EPS 추이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2014년 채권 전망: 기초적 경상수지 흑자 시대의 금리 및 통화정책

■ 완만한 경기회복과 구조적 한계

2014년 글로벌 경기모멘텀은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재정긴축 강도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교역도 다소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에는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부채부담이 높아진 선진국은 과거와 달리 수출과 제조업을 통해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 연준의 통화긴축 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신흥국들의 내수부양 의지도 전과 같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지속으로 한국경제의 산출량도 잠재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14년 완만한 경제회복이 기초적인 금리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 기초적 경상수지 흑자의 금리 및 통화정책 영향

미국의 중기적인 통화완화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미국금리 상승 시 한국금리도 상승했었다는 경험적 관점에서는 채권투자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때 아시아 4마리 용(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이라고 불리며 한국경제와 비교되던 국가들의 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낮다. 이들 국가들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저축률은 국내투자율보다 매우 높다. 최근 한국경제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채권금리도 미국보다는 이들 국가와 동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 2014년에도 유의미한 금리상승 없을 것

우리는 2014년 통화정책 방향도 긴축보다는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기축통화국의 금리인하 한계에 대한 한은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대규모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다. 물가가 낮고 대규모 자금잉여가 지속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 외환시장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내년 하반기 소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큰 폭의 금리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2014년에도 유의미한 금리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거두절미하고 연중 변동성 진정국면 즐기기

■ 2014년 크레딧 스프레드는 1분기 확대 후 점진적 축소

2013년 국내 채권시장의 큰 흐름은 대외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 채권시장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테이퍼링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미국시장 및 이에 연동한 한국채권시장의 변동성 증폭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테이퍼링에 대응한 채권가격조정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미국의 실제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동성이 줄어든 시장 환경하에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점진적인 축소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연말경에는 스프레드 확대 전환 예상

테이퍼링을 통한 QE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QE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하는 2014년말경에는 미 연준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다음 단계의 통화정책인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대두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올 여름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금리상승추세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시장금리 변동성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섹터별로는 회사채, 여전채, 은행채, 공사채 순으로 상대적 강세 예상

연중 변동성이 제한된 시장환경하에서는 크레딧 섹터내에서 유동성은 떨어져도 금리가 높은 회사채, 여전채가 은행채, 공사채에 비해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분기별 추이에 있어서는 테이퍼링 개시에 따른 시장변동성 증폭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와 QE종료후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시장변동성 증폭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에는 방어적 투자성향이 나타나면서 공사채와 은행채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양극화 현상 지속은 우량 크레딧물로의 수요 집중 효과

펀더멘털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부도 위기 상황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훼손이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한계기업의 부도 위기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크레딧채권 전반의 수요위축으로 연결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우량크레딧물과 비우량크레딧물간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이는 우량 크레딧물에는 수요집중 효과로 스프레드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상해종합 소폭 상승, 홍콩H 약세 전환

- ▶ 3중전회의 개혁 기대 재 부각되며 정책 수혜주 급등, 상해종합 0.3% 상승
- ▶ 과잉산업 통제 강화, 민영은행 설립 루머 등으로 은행 등 대형주 급락
- ▶ 홍콩H는 본토 유동성 긴축, 민영은행 설립 루머로 은행주가 하락하며 약세 전환

상해종합 소폭 상승
정보미디어, 통신서비스, 농업, 요식업 등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3% 상승해 10일 이동평균선에 다시 올라섰다.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이며 1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강세로 반전했다. 거래대금은 780억위안으로 전날의 663억위안보다 늘어났다. 정부가 과잉산업의 투자 관련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과 민영 은행 설립 루머가 돌면서 은행업종이 1.8% 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3중전회의 개혁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조정을 받았던 정책 수혜주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중앙정부가 농업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란 전망으로 농업주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정보미디어(6.1%), 통신서비스(4.5%), 농업(3.9%), 요식업(3.1%), 영화방송(2.5%), 의료서비스(2.3%), 에너지(2.2%), 환경보호(2.0%), 여행(1.7%), 전력(1.4%), 철강(1.1%), 부동산(0.8%), 석유(0.3%) 등이 강세였다. 반면 보험(-0.6%), 은행(-0.5%), 증권(-0.3%) 등의 금융업종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홍콩H 0.5% 하락
은행, 증권, 비철금속, 석탄 등 업종 하락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5% 하락해 엿새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하락세로 출발 후 장중 지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됐다. 금일 역RP발행 규모가 80억위안으로 축소됐다는 소식과 민영은행 설립 루머 등의 악재로 은행주가 크게 조정 받았다. 3중전회에 대한 해외기관의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지수 하락폭이 제한됐다.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비철금속, 석탄, 항공, 기계 등이 하락했던 반면 자동차, 전력, 철도, 석유 등은 상승 마감했다. 내년 베이징시가 차량 번호판 당첨 한도를 대폭 줄일 것이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개선 기대로 자동차주가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5(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57.24	0.35	1.33	0.73	-4.93
홍콩 H	10,637.15	-0.46	2.37	0.10	-6.99
인도 SENSEX	21,036.72	-0.95	2.27	-0.60	8.29
러시아 RTS	1,474.25	-0.06	-1.26	-0.42	-3.45
브라질 보베스파	54,436.92	0.78	-1.16	0.33	-10.69
베트남 VN	499.79	0.55	0.55	0.48	20.80
MSCI 이머징마켓	1,027.06	-0.08	-0.94	-0.71	-2.67

주: 5일 오후 5시 41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이틀째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로 양지수 모두 하락

- 미국증시는 3분기 GDP,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미 연준위원들이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소폭 오름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장중 2,010P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으나, 낙폭을 다소 줄이며 2,013P로 마감. 535P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약세, 열흘 만에 530P선을 내주며 1% 가까이 하락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오는 8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5%이상 강세를 보였으며,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베이직하우스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5개월 여만에 주가가 2만원을 회복. 지주사인 STX가 전문상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조기 정상화 기대감에 STX조선해양을 제외한 STX그룹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 반면,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에탁증권 발행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급락했으며,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 여타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 또한, 애플이 사파이어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파이어 재료를 자체 조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파이어테크놀로지가 하한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 용
강원랜드(035250) ▶32,500(+5.52%)	<p>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테이블·슬롯머신 증설에 힘입어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제기되며 견조한 오름세. 현재까지 늘어난 68대의 테이블은 부분 운영 중이며, 확대된 400대의 슬롯머신은 풀가동 중 - 아울러,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현재 2.9%로, 실적 개선세를 감안할 때 배당락도 빠르게 만회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베이직하우스(084870) ▶20,000(+3.90%)	<p>영업이익 흑자전환 소식에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8,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는 소식에 강세. 매출액은 2.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41억6,2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 - 국내 사업부문의 적자 브랜드 철수와 재고 축소, 중국 사업의 기존 브랜드 매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런칭 등으로 2014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STX그룹주	<p>조기 정상화 기대감에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X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상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기 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며 거래정지된 STX조선해양을 제외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 - STX(011810), STX엔진(077970), STX중공업(071970), STX팬오션(028670, 이상 상한가)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이엠코리아(095190) ▶10,00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류스트 수처리시스템(BWTS)과 터널굴착장비(TBM) 수요 증가에 따른 다음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신고가 경신
모이텍(033200) ▶6,270(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터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 최대주주인 일본의 미네베아(MINEBEA)사가 일본에서 3D프린터용 스테핑모터와 기어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IB월드와이드(011420) ▶2,020(+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그룹측에서 동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일 효성이 국내 기업 최초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와이슬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와이슬 (122990)	12,850 (+1.6)	12,650 (11/04)	-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바일용 신제품 모듈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전망 -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SAW제품 거래선 다변화, 통신 모듈 제품의 확장성, 신제품 모듈 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
오디텍 (080520)	13,950 (-6.4)	14,900 (10/11)	- LED용 제너 다이오드 칩 국내 시장점유율 독보적인 1위 업체로 LED 조명시장 성장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 출하량 증가세 지속 전망 - 휴대폰용 센서, 자동차용 센서, 그리고 국방 헬기용 센서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전망 - 전방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HB테크놀러지 (078150)	1,660 (-2.9)	1,710 (9/30)	- 올해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로 턴어라운드 시현. 경쟁사 이탈로 검사장비 부분 독과점적 수혜 예상 - 관계사 엘에스텍과의 흡수합병으로 도광판 부분 수직계열화 완성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확보. 합병 후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된 상황이며 잔여 BW 워런트는 연내 소각 예정 - 삼성전자 OLED A3라인 투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 수주잔고를 통해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성광밴드 (014620)	28,450 (-1.0)	28,750 (9/09)	-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주 지속. 미국 세일가스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 -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 금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MIX 개선으로 20%대의 고수익성 유지 전망
디지털옵틱 (106520)	18,250 (-7.4)	19,700 (8/28)	- 휴대폰 렌즈 사업부가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보급형 스마트폰 및 신규 태블릿PC 출시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BW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공장 통합 및 대규모 증설을 위해 발행이었다는 점과 금년 예상익 대비 PER이 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전망
휠라코리아 (081660)	79,000 (+24.8)	63,300 (8/28)	- 북미 지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중저가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로 휠라USA 실적 개선 - 휠라 USA 현재 오더 증가율이 30%대에 달하고 2012년 하반기 대량 반품 매출과 할인 판매로 인한 낮은 베이스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 국내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실적 악화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와이슬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67,300 (+2.1)	65,900 (11/04)	1,533	232	82	7,083	9.5
- 1등 아웃도어 브랜드(노스페이스, 에이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하반기 및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되며 영원무역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와 2014년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 - 방글라데시 증설 구체화와 함께 생산 품목 및 고객 다각화 시도에 장기 성장 잠재력 내재 - 현 시가총액은 동사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 지분 가치와 유사하며 지분 59%를 보유한 영원아웃도어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LG화학 (051910)	284,500 (-6.6)	304,500 (10/11)	5,010	676	515	29,123	9.8
-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한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고려아연 (010130)	309,000 (-5.5)	327,000 (9/09)	5,010	676	515	29,123	10.6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211,000 (+24.9)	169,000 (7/30)	726	182	164	8,200	25.7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77,500 (+5.9)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8.2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꼬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485,000 (-2.3)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3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고려아연, LG화학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BS금융지주(138930)

매수(유지)

목표가: 19,000원(유지)

종가(11/4): 16,200원

균형잡힌 성장과 마진관리의 좋은 예

■ What's new : 시장 예상과 당사 추정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

BS금융이 시장 예상치와 당사의 추정치와 부합하는 3분기 순이익 969억원을 발표했다. 원화대출은 2.2% QoQ 성장했고 NIM은 1bp QoQ 축소에 그쳐 순이자이익은 1.7% QoQ 증가했다. 개선된 시장여건에 힘입어 비이자이익도 대폭 개선되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88억 때문에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이 33% QoQ 증가했지만 원화대출금 기준 대손비용은 0.56%에 불과하므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 Positives : 고성장 지속과 NIM 관리로 총전 영업이익 14.4% QoQ 증가

지난 2분기 2년만에 확대세로 전환되었던 예대금리차 덕분에 확대되었던 NIM은 이번 분기 1bp QoQ 축소되었다. 그러나 2.2% QoQ 성장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NIM 1bp QoQ 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잘 관리된 NIM(-1bp QoQ)과 2.2%의 대출성장과 덕분에 순이자이익이 1.7% QoQ 증가했고 2분기 부진했던 비이자이익도 회복되면서 BS금융의 총전 영업이익은 14.4% QoQ 증가했다.

■ Negatives : 대손충당금 전입비용 33% QoQ 증가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이 33% QoQ 증가했다. 주요원인은 2분기 대기업 여신 신용위험평가에 이어 3분기 중소기업 여신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전입비용 88억원이다. 이러한 특이요인들을 제외하고 경상적 대손비용을 비교해도 3분기 대손비용은 2분기 대비 25% QoQ 증가했다. 하지만 3분기 원화대출금 대비 대손비용이 0.56%로 전분기 0.48%에 비해서는 높지만 절대적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현재의 성장수준이 유지되는 한 대손비용에 대한 우려는 적다는 판단이다.

■ 결론 : 양호한 실적, 투자 의견 매수 유지

BS금융은 자회사인 부산은행에 대해 1,500원의 규모의 증가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이 보유한 2,300억원 규모의 신중자본증권이 연말 상환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다.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신중자본증권 금리가 8.8%이므로 현재 금리 수준인 4%대로 차환될 경우 이자비용은 9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크진 않지만 현재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 토대를 마련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BS금융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292	294	0.4		1.7	3.5	1,147	
총전영업이익	176	183	3.6		14.4	0.3	653	
금융자산 손상차손	49	48	(2.1)		33.0	61.6	197	
세전이익	127	129	1.6		6.2	(12.9)	460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99	97	(2.3)	100	4.5	(14.2)	353	35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하이스코(010520)

매수(유지)
목표가: 51,000원(유지)
종가(11/4): 41,700원

놀라운 실적 + 합병 이후를 감안해도 매력적인 주가

■ What's new : 2004년 2분기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에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1,547억원으로 9.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실적이 발표된 2004년 이후 두번째(최고는 2004년 2분기의 9.7%)로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817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6.4%, 우리 추정치를 52.5% 상회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1) 당진 2공장 완공으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자동차용강관 출하량(2Q 89만톤 → 3Q 97만톤)이 늘었고, 2) 미국 자동차 판매 호조로 해외 자동차용강관 가격이 강세였으며, 3) 원재료 가격이 후행 해서 오르는 재고효과 등 냉연 부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Positives : 내부거래 제거 전 해외법인 영업이익률 5.8%로 상승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과 냉연부분의 분할 합병을 앞두고 있다. 성사 여부는 미지수지만, 냉연을 분리해서 실적을 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할 후 잔존하는 주력 사업인 해외 냉연판매 실적은 부진해 보인다. 연결에서 별도 영업이익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27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0.3%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내부거래를 제거(매출액 4,760억원, 영업이익 221억원)한 수치이다.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제거 전 해외 냉연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은 46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1.2% 증가한 것이며 영업이익률은 5.8%이다.

■ Negatives : 합병 이후 해외 냉연판매 수익성 악화 우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분할 이후 해외 냉연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분할 이후 2014년 해외 냉연판매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5%로 하락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 냉연판매 영업이익률은 1) 2010년 이후 연간 2.9% ~ 4.5%였으며, 2) 최근인 2013년 상반기가 4.3%(1분기 3.8%, 2분기 4.9%)였다.

■ 결론 : 분할 이후 수익성 악화를 감안해도 상승 여력 10% 이상

지금은 현대하이스코의 자체 실적보다는 분할 이후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분할 후의 주력 사업인 해외 냉연판매 사업의 영업이익률의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주가는 매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14년에 주력 사업인 해외 냉연판매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9%를 기록해도 현재 현대하이스코 1주의 가치는 분할 후 46,624원으로 현재 주가대비 10.6%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2014년에 영업이익률이 4.2%로 2013년과 동일하다면 현재 현대하이스코 1주의 가치는 분할 후 51,154원으로 상승 여력이 22.7%이다.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137	1,933	(9.5)	2,101	(1.7)	(6.4)	8,013	8,326
영업이익	119	182	52.5	124	58.8	107.2	529	468
영업이익률(%)	5.6	9.4	+3.8%p	5.9	NM	NM	6.6	5.6
세전이익	115	164	41.7	114	99.3	68.3	498	426
순이익	90	123	36.3	89	72.7	53.0	389	33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홈쇼핑(05705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0원(유지)

종가(11/4): 164,000원

양호한 3분기 실적, 시작되는 외형성장

■ What's new : 3분기 영업이익 331억원 (+7%YoY)

현대홈쇼핑의 3분기 실적은 우리의 추정과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1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3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다. 부문별 취급고는 TV쇼핑이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나면서 2분기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갔고 모바일쇼핑은 295억원으로 전분기 200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쇼핑은 1,74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세전이익은 433억원(+7%YoY)으로 영업이익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 Positives : TV쇼핑 상승 추세, 모바일쇼핑 고성장

특히 주목할 부분은 TV쇼핑 부문의 취급고가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난 것이다. 연초 MD개편 이후 신규 브랜드 런칭 등 상품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TV쇼핑 부문의 취급고 증가율은 2012년 2분기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2분기 두 자리 수(+13%YoY)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다. 모바일쇼핑도 크게 늘어났다. 경쟁사대비 규모는 아직 뒤지지만 매분기 증가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그룹의 온라인 강화 전략과 모바일쇼핑의 구조적 성장을 고려할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 Negatives : 외형성장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폭은 소폭 미진한 수준

취급고는 15%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7% 증가에 그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낮아진 4.9%를 기록했다. 3분기 중 마진 낮은 가전매출증가율이 여타 상품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매출이익률이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SO수수료는 상반기 중 반영되어 오던 수준(+15%YoY)이 3분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수수료 협상은 완결되지 않았지만 연내 타결될 경우 15%보다는 낮게 협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3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이 상승 반전되었고 의류매출 증가 추세와 SO수수료 협상 추이를 감안할 때 4분기 영업이익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3분기 중 가전제품 매출 증가에 따라 마진 개선은 없었지만 4분기는 의류매출 성수기이며 MD개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TV쇼핑 부문의 10월 취급고도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2014F PER 10.2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4F PER 12.5배에 해당한다.

	3Q13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취급고	664	672	1.1	N/A	1.8	15.3	3,107	N/A
영업이익	35	33	(6.0)	34	(7.3)	7.1	184	175
영업이익률(%)	5.3	4.9	-0.4%p	N/A	-0.5%p	-0.4%p	5.9	N/A
세전이익	46	43	(6.3)	44	(5.0)	7.2	249	235
순이익	34	33	(2.4)	34	(6.2)	(4.3)	192	179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GKL(114090)

매수(유지)

목표가: 47,000원(상향)

종가 (11/4): 39,150원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 중장기 성장성도 지속될 전망

■ What's new: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달성

GKL의 3분기 매출액은 1,54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 드롭액이 2.8% 감소했지만 홀드율이 16.0%로 전년동기 12.0%(콤프칩 관련 회계 기준 변경 후)보다 크게 상승해 카지노 순매출액이 16.5%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6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4% 증가해 시장 예상치 569억원을 18.1% 상회했다. 콤프비용이 17.9% 증가했지만 매출액 증대 효과가 더 컸으며, 상반기에 인식한 경영 성과급 예상치가 실제 지급 금액보다 많아 3분기에 예상보다 많이 반영된 부분이 환입(60억원 수준)됐기 때문이다.

■ Positives: 핵심 포인트인 중국인 드롭액 증가 추세 이어질 전망

3분기 카지노 이용객은 42.8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일본인 이용객은 8.0% 감소했지만 중국인은 41.6%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VIP 이용객은 20.0% 증가했고 중국인 드롭액이 23.0% 늘어나 중국인 드롭액 비중은 43.6%로 전년동기 대비 9.2%p 상승했다. GKL의 대중국인 마케팅 강화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중국인 이용객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 중국인 이용객, 중국인 VIP가 전년 대비 각각 36.2%, 57.1% 증가해 전체 드롭액은 16.4%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일본인 드롭액 감소 추세 지속

3분기 일본, 로컬 이용객의 드롭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1%, 2.8% 감소해 전체 드롭액이 2.8% 감소했다. 일본인의 인당 드롭액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나 엔화 약세 효과로 3분기 이용객수가 8.0% 줄었기 때문이다. 10월에도 전체 드롭액이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인 드롭액은 3% 증가하면서 개선 추세가 지속됐지만 일본, 로컬 이용객의 드롭액이 각각 33%, 7%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월의 영업 부진은 고객 유인을 위한 프로모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아니다(10월 홀드율 13.1%, 전년동월 13.2%).

■ 중장기적인 성장성 지속, 목표주가 상향

GKL의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높다. 1) 중국인 드롭액 증가가 지속되고, 2) 3천억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기존 영업장 확장, 제주도 복합리조트 개발, 선상 카지노 등의 카지노 사업 강화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계획이고(실적 업사이드 요인), 3) 배당수익률이 3%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14년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4년에는 전년 대비 3.4% 감소하겠지만, 3년 연평균으로 12.4% 성장할 전망이다. GKL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3분기 실적 개선, 개별소비세 추정 변경(5.4% → 3.3%), 인건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12%)과 목표 PER을 19배에서 20.4배(글로벌 카지노 업종 평균 PER)로 높인 것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4.7만원으로 상향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6	155	(0.8)	151	16.3	29.7	562	563
영업이익	58	67	16.0	57	53.8	82.4	190	177
영업이익률(%)	37.2	43.5	6.3	37.7	NM	NM	33.8	31.5
세전이익	59	64	7.6	59	61.6	64.3	192	181
순이익	45	48	5.4	45	60.1	67.4	146	13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에스원(012750)

매수(유지)
목표가: 81,000원(유지)
종가(11/4): 68,900원

좋은 가격에 잘 샀다

■ 신규 성장원 확보, '매수' 유지

에스원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 와 목표주가 81,000원(DCF 밸류에이션) 을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삼성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 양수를 가정한 2014년과 2015년 당기순이익은 기존대비 각각 10.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3 참조). 2) 건물관리사업의 높은 가시성과 수익성, 양호한 성장성과 현금흐름을 감안하면 양수가액이 매력적이다. 3) 건물관리사업은 기존 시스템경비 사업 고객과의 교차 영업이 가능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할 전망이다.

■ 삼성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을 4,800억원에 양수 결정

11월 4일 에스원은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을 4,800억원에 양수하겠다고 공시했다. 건물관리사업의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11억원과 642억원으로 2012년 에스원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각각 27.5%, 47.4% 수준이다. 2013년 6월말 자산은 265억원, 부채는 255억원으로 순자산은 10억원이다. 현재 직원수는 880명, 관리하는 건물은 187개동으로 약 90%가 그룹 관계사 대상이다. 건물관리 사업 영역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 업무인 청소, 보안 등 외에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대관리, 수입관리 등 자산관리(PM; Property Management) 및 컨설팅이다. 양수대금은 2014년 1월 10일에 현금 지급될 예정으로 금년말 예상 보유 현금에서 2,500억원과 2,300억원을 차입해 조달할 계획으로 낮은 차입 금리와 시스템경비 사업의 양호한 현금흐름을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다. 에스원은 양수 후에 비관계사 고객을 늘리고, 관리대상건물도 사무용빌딩에서 공장, 병원 등으로,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해 성장성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 건물관리사업은 기존 시스템경비 사업과 시너지가 클 전망

우리는 이번 영업 양수 결정을 양수가액과 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1) 건물관리사업의 높은 가시성과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양수가액은 매력적이다. 건물관리 계약은 연간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변경하기 쉽지 않아 실적의 가시성이 높다. 외부평가기관은 DCF방법으로 평가했는데, 적용된 가정들이 보수적이다. 건물관리사업 양수가액은 2013년 예상 EBITDA의 8.7배 수준으로 예상 차입금은 약 4년이면 상환할 수 있다. 2) 기존 보안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에스원은 신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건물관리사업 고객들에게 영업이 가능하고, 에스원이 현재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들도 건물관리사업의 잠재 고객이다. 시스템경비와 건물관리,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통합해 제공할 수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1,026	167	176	126	3,745	11.7	236	15.5	6.8	2.5	18.0
2012A	1,096	135	143	101	2,987	(20.2)	218	23.4	9.7	2.9	13.4
2013F	1,260	135	132	86	2,531	(15.3)	229	27.2	9.1	2.7	10.8
2014F	1,329	150	153	108	3,189	26.0	250	21.6	8.3	2.5	12.7
2015F	1,413	180	183	129	3,806	19.4	285	18.1	7.2	2.3	14.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29(화)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1.76	2,059.58	2,030.09	2,039.42	2,025.17	2,013.93	
	등락폭	3.62	7.82	-29.49	9.33	-14.25	-11.24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13)	452(6)	271(3)	403(3)	307(10)	304(23)
		하락(하한)	415(1)	352(1)	555(7)	396(7)	499(0)	499(1)
	ADR	83.93	87.81	86.98	88.55	89.40	90.45	
	이격도	10 일	100.31	100.57	99.18	99.70	99.14	98.80
		20 일	101.25	101.47	99.94	100.31	99.54	98.94
	투자심리	70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08	263	255	291	235	255	
	거래대금 (십억 원)	3,635	4,220	4,548	3,568	3,529	3,480	
코스닥	코스닥지수	533.91	537.68	532.44	534.74	533.64	528.73	
	등락폭	-1.07	3.77	-5.24	2.30	-1.10	-4.91	
	등락종목	상승(상한)	386(5)	452(4)	271(10)	522(6)	307(5)	270(3)
		하락(하한)	415(1)	352(0)	555(2)	402(4)	499(1)	658(1)
	ADR	80.55	84.90	85.88	86.25	88.22	87.62	
	이격도	10 일	100.86	101.35	100.15	100.41	100.13	99.26
		20 일	100.68	101.36	100.35	100.76	100.54	99.61
	투자심리	70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8	348	313	360	311	323	
	거래대금 (십억 원)	1,596	1,656	1,705	1,726	1,596	1,48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829.4	852.5	784.3	152.0	123.6	215.1	71.6	22.3	199.769	33.8
	매도	1,630.0	901.4	926.1	308.9	120.0	227.0	65.1	26.2	178.9	42.5
	순매수	199.3	-48.9	-141.8	-156.9	3.6	-11.9	6.4	-3.9	20.9	-8.7
	10월 누계	262.4	-56.7	-184.4	-324.6	40.2	-107.3	37.0	-18.0	188.4	-21.3
	13년 누계	-4,773.7	5,111.8	1,305.4	725.6	1,239.3	-6,434.6	-415.9	-2,664.7	8,855.8	-1,643.4
코스닥	매수	1,344.5	61.9	78.0	12.2	9.8	23.0	11.9	1.3	19.7	12.9
	매도	1,328.3	77.6	79.3	17.5	7.8	21.3	7.0	2.3	23.3	12.1
	순매수	16.2	-15.7	-1.3	-5.3	2.0	1.7	4.9	-1.0	-3.6	0.8
	10월 누계	9.7	-75.0	61.1	17.0	7.4	32.5	18.2	0.3	-14.3	4.2
	13년 누계	-757.9	1,637.7	-39.8	-114.9	-85.3	148.4	-132.6	-83.9	228.5	-839.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7,836	전기,전자	-15,685
철강및금속	11,520	화학	-7,405
전기가스업	6,576	통신업	-4,348
POSCO	8,523	삼성전자	-9,755
현대모비스	7,625	효성	-6,491
강원랜드	7,168	LG화학	-5,328
한국전력	6,089	GKL	-5,027
현대미포조선	5,232	SK텔레콤	-4,666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9,860	기계	-17,773
운수장비	12,395	통신업	-8,964
전기,전자	6,798	화학	-3,730
POSCO	17,323	두산인프라코어	-14,030
삼성전자	6,698	KT	-10,565
강원랜드	6,190	효성	-10,554
한국전력	4,542	삼성전자우	-4,031
현대모비스	3,385	두산중공업	-3,64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549	통신업	-2,570
건설업	414	철강및금속	-2,138
화학	304	전기,전자	-1,657
현대제철	1,369	POSCO	-3,551
LG화학	1,152	KT	-2,570
KODEX 200	970	일진머티리얼즈	-1,665
강원랜드	932	KODEX 인버스	-1,442
두산인프라코어	930	KODEX 레버리지	-1,42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8,252	유통업	-7,506
서비스업	6,655	기계	-5,568
운수장비	4,227	전기,전자	-5,017
삼성화재	8,443	호텔신라	-7,858
NAVER	7,831	KODEX 200	-6,979
우리금융	4,515	신한지주	-4,735
한국전력	4,297	삼성전자	-4,045
삼성중공업	3,966	두산인프라코어	-2,92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24,450	전기,전자	-72,454
운수장비	19,421	기계	-32,155
전기가스업	16,430	통신업	-22,628
POSCO	20,014	삼성전자	-39,081
강원랜드	17,411	TIGER 200	-27,410
한국전력	16,037	KT	-26,157
KODEX 인버스	12,189	효성	-22,815
현대모비스	8,613	두산인프라코어	-20,470
현대미포조선	6,227	신한지주	-12,848
우리금융	6,021	KODEX 200	-12,413
현대제철	5,678	두산중공업	-12,269
SK C&C	5,321	삼성전기	-12,139
한화케미칼	4,956	호텔신라	-10,100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18,310	화학	-33,420
전기,전자	14,675	철강및금속	-23,304
서비스업	13,388	운수장비	-22,360
TIGER 200	27,623	LG화학	-22,986
KODEX 200	21,781	현대차	-18,448
NAVER	19,675	POSCO	-18,262
삼성전자	13,975	효성	-14,255
현대위아	13,910	SK이노베이션	-10,255
신한지주	13,335	KODEX 레버리지	-8,657
삼성전자우	9,047	기아차	-8,509
SK하이닉스	6,546	삼성중공업	-7,728
GKL	5,775	한국전력	-6,250
KB금융	4,773	KT	-5,9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086	사업지원	-1,732	IT부품	4,174	반도체	-2,336
소프트웨어	701	금속	-1,458	사업지원	683	기계,장비	-1,182
반도체	514	의료,정밀기기	-556	의료,정밀기기	534	통신서비스	-1,145
씨젠	1,530	하나투어	-1,726	이녹스	1,419	이오테크닉스	-1,976
이라이컴	1,252	서울반도체	-777	서울반도체	1,287	에스에프에이	-1,415
CJ E&M	761	하이록코리아	-773	이라이컴	1,056	SK브로드밴드	-1,145
우리산업	700	성광벤드	-661	CJ E&M	966	실리콘웍스	-1,024
네패스	499	이노칩	-658	파트론	954	인터파크	-69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서비스	233	소프트웨어	-395	전문기술	1,889	기계,장비	-1,836
운송장비,부품	88	IT부품	-291	반도체	1,211	금속	-711
사업지원	21	의료,정밀기기	-274	IT부품	922	오락,문화	-252
이트레이드증권	233	인프라웨어	-408	CJ E&M	1,895	에스에프에이	-1,369
뷰웍스	136	세코닉스	-285	파트론	1,060	서원인텍	-739
이녹스	94	비에이치	-261	서울반도체	879	제이브이엠	-448
우리산업	90	피에스케이	-214	위메이드	290	성광벤드	-408
네패스	65	아트라스BX	-112	옵트론텍	235	하이록코리아	-37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111	반도체	-7,065	금속	1,933	반도체	-7,897
전문기술	2,896	기계,장비	-4,314	오락,문화	1,609	계약	-2,048
운송장비,부품	1,075	금속	-2,810	출판,매체복제	1,261	화학	-1,900
CJ E&M	4,419	에스에프에이	-4,183	하이록코리아	1,837	서울반도체	-2,823
이라이컴	2,501	이오테크닉스	-3,082	인터파크	1,490	이오테크닉스	-1,315
이녹스	2,253	하이록코리아	-2,035	메디톡스	1,368	셀트리온	-1,291
씨젠	1,730	GST	-1,579	파라다이스	1,365	원익IPS	-1,088
우리산업	1,197	서울반도체	-1,457	에스엠	1,280	잉크테크	-916
인터플렉스	858	인터파크	-1,427	성우하이텍	1,118	덕산하이메탈	-841
메가스터디	810	하나투어	-1,362	KH바텍	1,038	평화정공	-802
포스코 ICT	659	선데이토즈	-1,326	성광벤드	833	달리	-764
네패스	658	파라다이스	-1,209	TPC	832	메가스터디	-754
KH바텍	568	서원인텍	-877	블루콤	715	오로라	-5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엔씨소프트	11 일	삼성전자	29 일
세아베스틸	8 일	기업은행	19 일
넥센타이어	8 일	신세계	17 일
현대모비스	8 일	LG패션	12 일
농심	6 일	오리온	11 일
POSCO	6 일	현대산업	11 일
삼영전자	6 일	신도리코	9 일
LS	6 일	풍산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00 일	인터파크	11 일
KH바텍	10 일	솔브레인	11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성우하이텍	7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포스코 ICT	5 일
메가스터디	4 일	CJ오쇼핑	5 일
서부T&D	3 일	하나투어	5 일
포스코 ICT	3 일	실리콘웍스	5 일
태광	3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62,563	삼성전자	429,451
POSCO	59,401	SK텔레콤	181,035
한국전력	42,729	KODEX 200	103,783
강원랜드	39,530	TIGER 200	43,673
현대모비스	31,654	호텔신라	42,431
현대제철	21,228	현대위아	30,385
SK하이닉스	19,986	삼성전자우	28,011
엔씨소프트	17,230	SK하이닉스	26,86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오테크닉스	40,596	성우하이텍	8,819
서부T&D	8,204	인터파크	8,643
에스앤씨엔진그룹	7,654	루멘스	7,773
KH바텍	5,887	CJ오쇼핑	7,669
세코닉스	4,549	KG이니시스	6,466
서울반도체	4,216	GS홈쇼핑	5,736
셀바이오텍	3,023	원익IPS	5,155
원스테크넷	2,427	포스코 ICT	4,65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서비스업	5,959	13,388	19,347
섬유, 의복	313	386	699
종이, 목재	350	176	526
현대위아	2,969	13,910	16,879
KODEX 인버스	12,189	1,844	14,033
현대모비스	8,613	2,912	11,524
한화케미칼	4,956	3,055	8,011
엔씨소프트	2,807	2,416	5,223
에스원	2,201	1,693	3,894
LG하우시스	1,765	1,305	3,070
현대글로벌비스	2,128	937	3,065
한화	22	2,941	2,963
BS금융지주	1,835	26	1,86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전문기술	2,896	629	3,525
출판, 매체복제	177	1,261	1,438
컴퓨터서비스	621	214	835
이라이컴	2,501	85	2,585
이녹스	2,253	72	2,325
KH바텍	568	1,038	1,606
에스엠	129	1,280	1,408
포스코 ICT	659	170	829
블루콤	71	715	786
삼천리자전거	100	600	701
에스엔유	92	450	542
한국컴퓨터	438	69	507
휴온스	396	54	4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제일모직	21 일	대덕전자	16 일	에스에프에이	30 일	KCC건설	14 일
삼성전자	21 일	한섬	14 일	우주일렉트로	21 일	평화정공	9 일
KT	21 일	세아베스틸	12 일	인터파크	7 일	OCI머티리얼즈	8 일
현대상선	16 일	넥센타이어	10 일	오스템임플란트	7 일	이오테크닉스	8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4 일	기아차	8 일	포스코엠텍	6 일	다음	7 일
두산중공업	11 일	LG상사	8 일	심텍	6 일	웹젠	7 일
TIGER 원유선물(H)	11 일	STX엔진	8 일	태웅	4 일	DMS	5 일
쌍용차	10 일	삼성중공업	7 일	다날	4 일	동국산업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38,564	현대차	-72,902	에스에프에이	-9,450	이오테크닉스	-60,404
SK텔레콤	-92,381	POSCO	-69,167	인터플렉스	-5,081	셀트리온	-29,207
KT	-84,970	LG화학	-59,953	인터파크	-4,953	서울반도체	-4,666
KODEX 200	-69,600	기아차	-50,012	에스엠	-4,359	서울전자통신	-2,810
KODEX 레버리지	-61,531	한국전력	-33,291	포스코 ICT	-3,398	다음	-2,482
TIGER 200	-40,112	삼성중공업	-31,953	파라다이스	-3,269	게임빌	-1,972
두산인프라코어	-39,374	삼성SDI	-28,676	CJ오쇼핑	-3,222	잉크테크	-1,950
NAVER	-33,027	효성	-24,242	CJ E&M	-3,153	오스템임플란트	-1,79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9,705	-33,420	-53,126	반도체	-7,065	-7,897	-14,962
기계	-32,155	-1,223	-33,378	화학	-724	-1,900	-2,625
통신업	-22,628	-7,138	-29,766	금융서비스	-1,327	-101	-1,427
효성	-22,815	-14,255	-37,070	이오테크닉스	-3,082	-1,315	-4,397
KT	-26,157	-5,990	-32,147	에스에프에이	-4,183	-121	-4,304
두산인프라코어	-20,470	-1,228	-21,698	서울반도체	-1,457	-2,823	-4,280
삼성전기	-12,139	-259	-12,398	GST	-1,579	-122	-1,701
SK이노베이션	-1,255	-10,255	-11,510	원익IPS	-603	-1,088	-1,691
기아차	-2,082	-8,509	-10,591	덕산하이메탈	-568	-841	-1,410
CJ제일제당	-3,687	-4,082	-7,769	선데이토즈	-1,326	-36	-1,362
LG디스플레이	-1,474	-5,511	-6,985	셀트리온	-1	-1,291	-1,292
삼성생명	-3,944	-2,604	-6,548	매일유업	-807	-136	-943
제일모직	-4,853	-943	-5,796	잉크테크	-1	-916	-91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NAVER	18	10,353	
현대중공업	33	8,386	
롯데케미칼	35	7,346	
현대상선	497	7,049	
KT	202	6,964	
삼성엔지니어링	58	4,346	
SK하이닉스	115	3,806	
NAVER	18	10,35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파트론	103	1,882	
위메이드	17	761	
루멘스	77	751	
셀트리온	16	723	
씨젠	11	644	
에스엠	13	508	
옵트론텍	39	487	
하나투어	7	45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44	5,461,761
POSCO	8,744	2,771,992
LG전자	18,915	1,303,231
현대차	4,502	1,116,381
OCI	4,981	948,862
NAVER	1,332	780,566
현대중공업	2,655	681,132
SK하이닉스	18,080	597,53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4,906	655,885
파라다이스	4,836	130,824
파트론	5,448	99,152
에스엠	2,292	89,271
서울반도체	1,986	84,610
다음	886	77,557
SK브로드밴드	16,797	76,173
CJ E&M	1,792	66,01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4,054	보험	-2,156
통신업	2,781	서비스업	-2,116
운수장비	1,756	금융업	-1,806
STX팬오션	2,468	한화생명	-1,571
LG유플러스	1,553	두산인프라코어	-1,479
SK텔레콤	1,380	우리금융	-1,107
미래산업	1,106	대영포장	-925
대한항공	1,030	한화케미칼	-900
기아차	993	SBS미디어홀딩스	-857
코라오홀딩스	945	삼성엔지니어링	-779
삼성중공업	795	두산중공업	-602
SK하이닉스	490	코오롱인더	-577
현대산업	473	한국전력	-54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컴퓨터서비스	448	IT부품	-4,463
종합건설	407	사업지원	-1,347
반도체	361	오락,문화	-812
인프라웨어	473	파트론	-1,982
AP시스템	300	파라다이스	-897
미코	291	루멘스	-890
포스코 ICT	290	SK브로드밴드	-871
네팩스	235	세중	-798
서희건설	224	하나투어	-589
대아티아이	221	한국사이버결제	-558
서한	179	인탑스	-552
하림홀딩스	163	리홈쿠첸	-550
덕산하이메탈	156	셀트리온	-531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외국인	5,111.8	-56.7	66.0	147.3	-24.6	157.2	-180.4	-48.9
기관계	1,305.4	-184.4	-480.4	-67.2	-228.8	-70.7	34.9	-141.8
(투신)	-6,434.6	-107.3	-277.3	-49.9	-120.1	-45.3	-44.6	-11.9
(연기금)	8,422.9	178.8	235.0	6.7	49.6	19.2	148.3	16.6
(은행)	-2,664.7	-18.0	-22.7	-2.2	-2.5	-12.5	-4.8	-3.9
(보험)	1,239.3	40.2	24.2	57.2	-73.2	0.3	33.3	3.6
개인	-4,773.7	262.4	420.8	-82.0	240.5	-89.0	152.0	199.3
기타	-1,643.4	-21.3	-6.4	1.9	13.0	2.6	-6.4	-8.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0/29(화)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KOSPI	2,033.3	1,825.7	1,997.1	2,051.8	2,059.6	2,030.1	2,039.4	2,025.2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6,493.4	15,796.9	15,250.9	16,558.8	15,701.7
(증감액)	1,996.5	3,611.7	334.1	907.6	-696.5	-546.0	1,307.9	-857.1
(회전율)	50.9	34.2	26.7	31.7	37.2	41.0	32.7	31.0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123.0	-824.5	-564.3	1,151.3	-622.4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31.8	4,547.7	4,548.4	4,559.4	4,556.2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28.7	118.9	113.7	118.3	146.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29(화)	10/30(수)	10/31(목)	11/04(금)	11/05(월)
전체 주식형	85,129	-8,255	-331	-226	-31	204	-218	-113
(ex. ETF)		-10,234	-106	-83	-153	-117	-58	-47
국내 주식형	64,159	-4,503	-280	-210	-16	222	-194	-86
(ex. ETF)		-6,516	-55	-67	-137	-100	-34	-21
해외 주식형	20,970	-3,751	-51	-16	-16	-18	-24	-27
(ex. ETF)		-3,718	-51	-16	-16	-18	-24	-27
주식 혼합형	9,862	-57	10	-2	-17	6	3	8
채권 혼합형	23,134	4,422	24	10	-24	-37	11	13
채권형	55,528	1,915	193	8	21	38	-177	370
MMF	75,744	8,705	1,167	-1,163	2,103	-404	-1,720	2,88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한 국	5,048	-44	590	139	-23	162	-170	-37
대 만	7,462	46	519	170	140	13	149	-116
인 도	16,330	0	163	167	290	-	-	-
인도네시아	-1,122	-89	-294	-15	16	-48	-41	-
태국	-3,517	-82	-206	1	-51	-57	-25	-
남아공	1,895	-75	-75	-7	25	-32	-43	-
필리핀	948	-9	-18	-6	-3	-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10/29(화)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회사채 (AA-)	3.29	3.23	3.22	3.25	3.27	3.29	3.31
회사채 (BBB-)	8.80	8.93	8.92	8.95	8.97	8.99	9.01
국고채 (3년)	2.82	2.80	2.79	2.82	2.84	2.86	2.88
국고채 (5년)	2.97	3.04	3.02	3.06	3.08	3.11	3.15
국고채 (10년)	3.16	3.39	3.36	3.40	3.45	3.47	3.51
미 국채 (10년)	1.76	2.51	2.50	2.56	2.62	2.61	-
일 국채 (10년)	0.80	0.61	0.59	0.59	0.59	0.60	-
원/달러	1,070.60	1,060.60	1,060.60	1,060.70	1,061.85	1,062.95	1,061.20
원/엔	1,243.73	1,083.68	1,070.30	1,078.60	1,081.00	1,077.00	1,076.00
엔/달러	86.08	97.87	98.23	98.34	98.30	98.76	98.62
달러/유로	1.32	1.38	1.38	1.37	1.36	1.34	1.34
DDR3 1Gb (1333MHz)	0.67	1.53	1.53	1.53	1.53	1.53	-
DDR3 2Gb (1333MHz)	1.07	1.97	2.06	2.15	2.18	2.17	-
NAND Flash 16Gb (MLC)	1.89	3.56	3.56	3.55	3.55	3.54	-
CRB 지수	295.01	280.64	280.02	277.86	274.96	273.72	-
LME 지수	3,454.5	3,152.3	3,179.3	3,152.2	3,140.4	3,100.3	-
BDI	699	1,551	1,484	1,542	1,525	1,552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8.20	96.77	96.52	94.60	94.60	-
금 (달러/온스)	1,663.40	1,345.50	1,337.60	1,323.70	1,313.20	1,314.7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0월 30일	271.44	272.85	0.85	1.41	1.91	136,931	132,634	145
10월 31일	266.91	268.85	0.81	1.94	1.78	154,890	132,296	-338
11월 1일	268.63	269.50	0.80	0.87	1.34	102,944	133,131	835
11월 4일	266.59	267.00	0.74	0.41	0.77	138,462	130,303	-2,828
11월 5일	264.96	265.65	0.73	0.69	0.74	164,746	127,254	-3,04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0월 30일	-51	-901	872	-260	1,068	-60	48	26
10월 31일	-2,367	1,630	1,135	4,737	-3,147	62	-457	-11
11월 1일	708	-392	-409	-956	725	46	-205	-18
11월 4일	-1,014	188	1,401	1,560	-1	100	-246	-13
11월 5일	-2,070	1,324	1,109	2,524	-1,113	-4	-294	-4
누적포지션	2,071	4,867	-6,242	-1,141	-4,752	1,817	-1,769	-247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0월 30일	581	800	219	571	709	138	10	91	81	5,050	9,743
10월 31일	1,199	1,053	-146	1,177	1,000	-177	21	53	32	5,063	9,774
11월 1일	570	584	13	554	565	12	17	18	2	5,058	9,775
11월 4일	990	624	-367	952	611	-341	38	12	-26	5,081	9,669
11월 5일	758	495	-263	720	483	-237	38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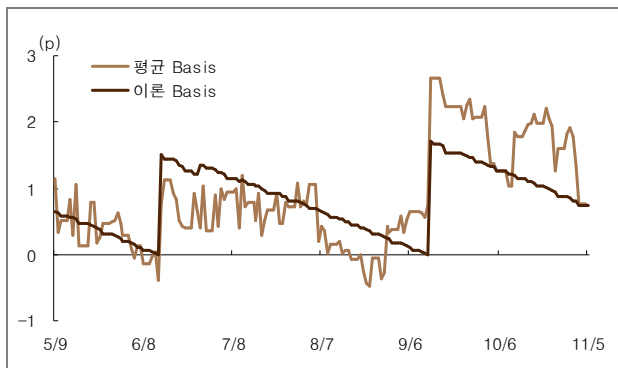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3.62	-8,123	58,754	0.01	280.00	15.00	37	-8	19.94
	12.65	-4,273	88,216	0.02	277.50	12.40	71	-20	13.87
	11.97	-437	183,102	0.05	275.00	10.15	429	-271	17.07
	11.75	10,892	289,687	0.15	272.50	7.55	2,087	-52	12.35
	11.92	4,387	275,426	0.44	270.00	5.35	11,196	-954	12.34
	11.96	5,854	210,850	1.03	267.50	3.45	45,549	-1,168	12.31
	12.13	4,862	98,633	2.08	265.00	2.02	208,905	-1,132	12.56
	12.56	458	8,351	3.65	262.50	1.07	202,989	-993	12.90
	13.36	239	2,664	5.65	260.00	0.54	209,118	-3,337	13.53
	12.85	29	164	7.80	257.50	0.25	109,456	3,822	14.05
	15.01	-1	28	10.25	255.00	0.13	64,748	3,244	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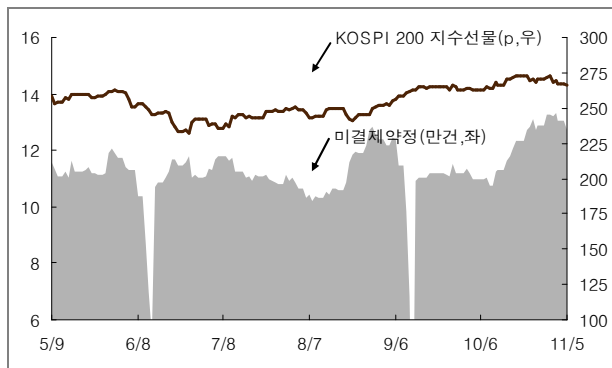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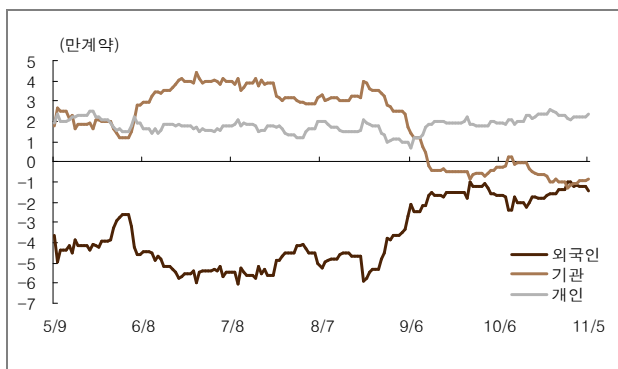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4 (전 거래일 대비 0.03 하락)
- 이론 Basis: 0.73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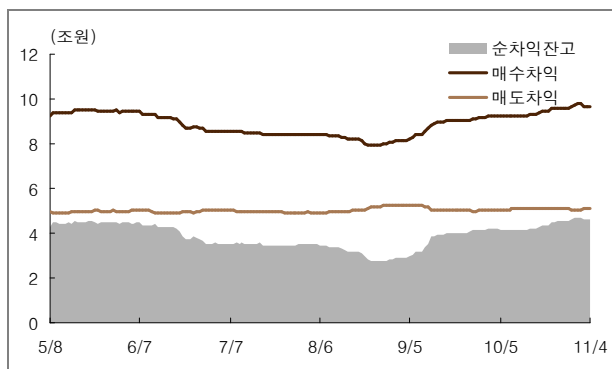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049 계약 감소한 127,254 계약
- 선물가격(265.65): 전 거래일 대비 1.3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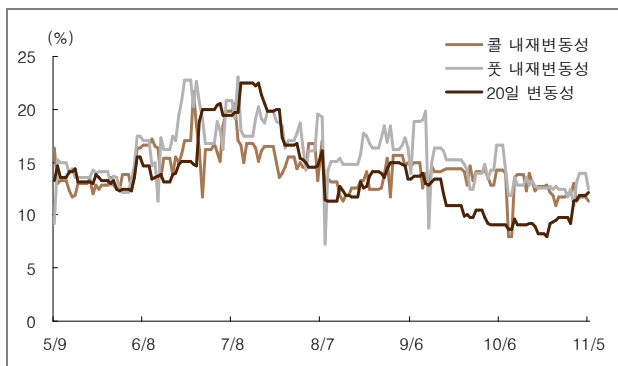
- 외국인: 2,070 계약 순매도
- 기관: 1,109 계약 순매수 / 개인: 1,324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258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2,372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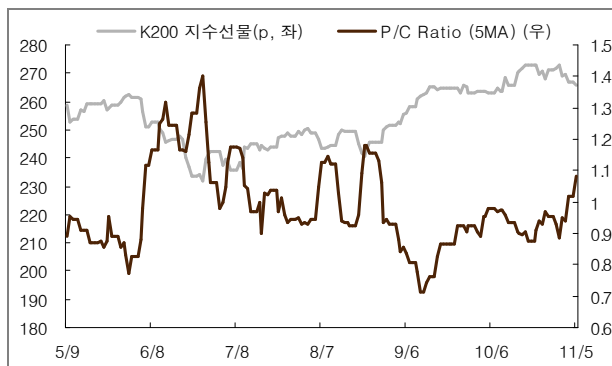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1.3% / 풋 12.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14%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8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8	29	30	31	11/1
韓> 10월 소비자대지수 (106, n/a, 102) 美> 9월 미경주택매매 (-5.6%, 0.5%, -1.6%)	韓> 9월 BoP 경상수지(억달러) (657.1, n/a, 573.5) 美> 8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64.53, n/a, 162.59) 日> 9월 실업률 (4.0%, 4.0%, 4.1%) 9월 소매판매 MoM (1.8%, 0.5%, 0.9%)	韓> 9월 광공업생산 YoY (-3.6%, 1.7%, 3.2%) 美> 10월 ADP 취업자 변동 (13.0만, 15.0만, 14.5만) FOMC 금리결정 (0.25%, 0.25%, 0.25%)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14.5, -14.5, -14.5) 日> 9월 광공업생산 예상 MoM (1.5%, 1.8%, -0.9%)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0만, 33.8만, 35.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88.1만, 287.0만, 285.0만) 유럽> 9월 유로존 실업률 (12.2%, 12.0%, 12.0%) 10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0.7%, 1.1%, 1.1%) 日> 9월 건설 수주 YoY (89.8%, n/a, 21.4%) 10월 JMMA 제조업 PMI (54.2, n/a, 52.5)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7%, 1.0%, 0.8%) 10월 수출 YoY (7.3%, 2.3%, -1.5%) 10월 제조업 PMI (50.2, n/a, 49.7) 美> 10월 ISM 제조업지수 (56.4, 55.0, 56.2) 中> 10월 제조업 PMI (51.4, 51.1, 51.1) 10월 HSBC 제조업 PMI (50.9, 50.7, 50.2)
4	5	6	7	8
美> 9월 제조업수주 (1.7%, 1.8%, -0.1%) 유럽> 10월 유로존 제조업 PMI (51.3, 51.3, 51.4) 中> 10월 비제조업 PMI (56.3, n/a, 55.4) 실적발표> 韓 BS금융지수 美 시스코, 켈로그, 마라톤 오일	유럽> 9월 생산자물가지수 (n/a, 0.2%, 0.0%) 中> 10월 HSBC 서비스 PMI (52.6, n/a, 52.4) 실적발표> 韓 서울반도체 美 다이렉티비, CVS	美>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4.0, 54.4) 11월 IBD/TIPP경기낙관지수 (n/a, n/a, n/a)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6.4%) 유럽> 10월 유로존 서비스 PMI (n/a, 50.9, 50.9) 9월 소매판매 (n/a, 0.6%, -0.3%) 실적발표> 韓 SK브로드밴드, 골프존 美 21세기 폭스, CH로빈슨, 타임워너, 펍코, 데본에너지, 듀크에너지, 푸르덴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4.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288.1만)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1.9%, 2.5%) 유럽> ECB 금리공시 (n/a, 0.5%, 0.5%) 日> 9월 예상 동행지수 (n/a, 108.3, 107.6) 9월 예상 선행지수 CI (n/a, 109.4, 106.8) 실적발표> 韓 한라비스테온공조, NAVER GS리테일, 지역난방공사 美 켈컴, 프라이스라인	美> 10월 실업률 (n/a, 7.3%, 7.2%) 10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2.5만, 14.8만)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13.0만, 12.6만) 中> 10월 무역수지(억달러) (n/a, 242.5, 152.1) 실적발표> 韓 강원랜드, CJ E&M, 한전, 삼성증권, 다음, 한화생명 美 월트 디즈니
11	12	13	14	15
유럽> 8월 산업생산 SA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0월 광공업생산 日> 9월 BoP 경상수지	韓> 10월 수출/수입물가지수 美> 10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日> 10월 통화량 M2 YoY 10월 통화량 M3 YoY 10월 국내 CGPI YoY	韓> 10월 실업률 SA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월 수입물가지수 유럽> 9월 산업생산 SA MoM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9월 무역수지 中> 10월 외국인 직접투자 日> 3분기 GDP SA 9월 광공업생산	美> 10월 광공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럽> 3분기 GDP SA 10월 소비자물가지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